

2020. 12. 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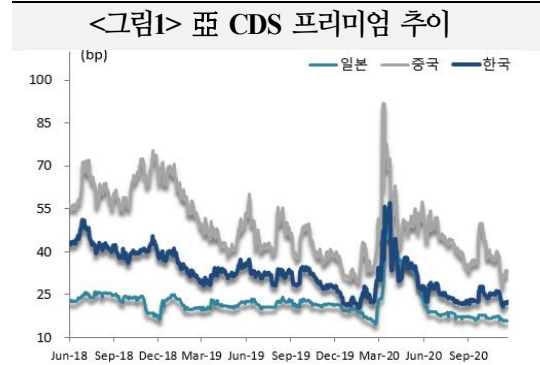
美 고용부진 불구 재정부양책 기대 등으로 가산금리 하락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□ [유통시장] 美 고용지표(11월 비농업부문 고용, 노동시장 참가율 등) 부진 등 지표악화가 재정 부양책 타결 기대를 키우면서 지난주에 이어 위험자산 선호 랠리를 이어나가며 2주 크레딧물 가산금리 및 CDS는 하락

○ 2주 크레딧물 가산금리 : IG, HY하락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-3.4bp, HY -22.2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도 하락(-9bp~-3bp)
- 코로나19 재유행과 봉쇄 조치의 강화로 미 노동부가 집계한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장 예상치인 44만명 증가에 크게 못미친 24만 5천명 증가, 노동시장 참가율도 61.5%로 전월보다 2%p 하락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둔화. 그러나 고용지표 악화가 시장에서는 부양책 타결 시급성을 확인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美 주식시장 3대지수 모두 장중 및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
- 美행정부 정권 막바지에 중국 기업 및 공산당에 대한 투자제재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, 최근 중국 역내 채권 디폴트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아시아 크레딧에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,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시장내 美대선 불확실성 해소 등 시장 우호적인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선도(GS)



자료: KCIF, Bloomberg

○ 2주 CDS 하락 : 일본 -0.2bp, 중국 -1.9bp, 한국 -1.0bp, 말레이시아 -0.8bp, 태국 -1.0bp, 베트남 -3.5bp, 인도 -4.5bp, 필리핀 -1.5bp

□ [발행시장] 12월 첫째주 2주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증가한 약 \$100억 발행 (11월 넷째주 \$23억 발행)

- 12월 첫째주는 전주부터 이어온 백신랠리 등에 힘입어 올해 10월 이후 최고수준이자 지난해 12월 전체 발행량보다 많은 총 100억불 규모 발행. 리얼머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수요가 관찰되었으며, 총 25억불 규모의 영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. 다음주부터는 발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한산할 것으로 전망(JP Morgan)

<표 1> 주요 2주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발행기관	종류	신용등급	발행일	만기	통화	발행액	발행금리	주문액	비고
Philippine Government	Sec-Registered	Baa2/BBB+/BBB	20/12/02	45/12/10	USD	15	2.65	-	-

<표 2>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19년말	11/27일	12/4일
외평채'29	10	6/19/2029	47	38	34
산업은행'24	5	10/1/2024	51	42	39
국민은행AT1	5	7/2/2024(1st call)	206	253	242
한국서부발전'22	3	7/22/2022	59	45	40
한국전력공사'24	5	6/24/2024	68	59	51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<표 3> 2주 주요국 CDS

	'19년말	11/27일	12/4일
한국	22	21	20
일본	20	16	16
중국	31	30	29
태국	23	36	35
인도	62	73	68

□ [미국 IG 발행시장] 12월 첫째주 IG발행시장은 전주 대비 증가한 총 \$250억 발행(전주 \$3억)

- 12월 첫째주 발행시장은 우량등급 채권에만 자금이 집중되었던 지난 11월과 달리 보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서도 강한 투자자 수요가 관찰되면서 견조한 투자자 수요에 힘입어 총 250억불 발행. 이후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주 대비 발행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(JP Morgan)